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0, 요한계시록 14장, 성도의 구원 악인에 대한 심판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성도의 구원, 악인에 대한 심판 20회입니다.

12장과 13장에서 우리는 온 세상을 속여 그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사탄과
짐승들의 손에 의한 교회의 갈등의 실체가 폭로되거나 묘사되거나 드러나는
것과 교회가 인내하고 인내하라는 요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와중에 타협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14장과 15장에서 우리는 12장과 13장을 통해 성도들의 승리와 충실하고
인내한 성도들의 상급을 묘사하는 일련의 이미지에 접근하며, 짐승과 짐승에게
임하는 심판도 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세상과 짐승과 그 추종자들, 짐승을
따르고 그에게 충성을 바친 자들, 이제 우리는 그들의 심판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과 15장에서 보상을 발견하는데, 이는 다소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전체에 걸쳐 성도들의 보상과 악인과 불신자들의
형벌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저자가 심판과 구원
사이의 비전을 번갈아 가면서 최종 심판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탐구합니다.

14장의 이 부분은 15장의 처음 네 구절을 통해 요한이 소개하는 일련의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본, 또는 귀하의 영어 번역에서 본 그 작은 문구는
종종 별개의 단위나 섹션을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여기에서는 14장과 15장에서
적어도 4개의 다른 섹션을 표시하거나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 양과 144,000명이 시온 산에 서서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환상을 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복음과 종말의 구원, 즉 종말의 심판을 선포하는 세 천사의 형상입니다. 세 번째는 14장과 14절부터 20절까지에서 사람의 아들이 땅을 추수하러 오는 환상을 봅니다. 우리는 실제로 수확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곡식 수확이고 다른 하나는 포도 수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성도들이 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네 가지 주요 섹션으로 이어지는데, 1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섹션은 제가 보거나 본 것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장 이에 내가 보니 내 앞에 어린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그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13장과 대조되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는지라 큰 물소리가 들리고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의 소리 같으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4,000명 외에는.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을 지켰으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사신 바 되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졌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있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큰 소리로 이르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따라와서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만국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마시게 한 후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소리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에게 자기의 목전에 경배하면 그도 그들의 이마나 손에 그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온전히 부어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께 충실한 성도들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더라.

영이 이르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너희의 낫을
휘두르라 땅에 곡식이 익었으니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이 곡식을 거두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도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그런데 불을 휘두르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네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가 익었으니 포도송이를 거두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성 밖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니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천육백 스타디온에 퍼졌습니다.

이 섹션은 제 생각에 14장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 섹션은 구원과 심판 사이를 번갈아가는
일련의 장면이며, 그것이 하는 일은 구원과 보상을 묘사합니다. 12장과
13장에서는 인내한 신실한 자들이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고 타협하고
저항하기를 거부하며 오히려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그의 형상대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심판을 그리고 있다. 주장하는 로마의
이데올로기.

그래서 14장은 이제 12장과 13장에서 사람들의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묘사하면서 구원과 심판의 장면을 묘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은 어린양의
그림으로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이 어린 양의 그림과 의도적으로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린양처럼 죽임을 당했다가 지금은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지금은 살아 계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그 짐승도 죽은 것처럼 보이므로 그것을 흉내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죽었지만 이제는 살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첫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 것이지만, 둘째 짐승도 13장에서는 하나로 묘사하고 있고, 11절에서는 어린 양처럼 두 뿔 가진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어린 양은 13장의 두 짐승과 정반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즉, 13장에서는 두 짐승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고 따르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핍박을 받으나, 이제 13장에서 따르기를 거부하고 어린양을 따르던 자들은 이제 승리하신 어린양과 함께 시온에 서느니라..

우리는 이미 7장에서 144,000명을 소개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군대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이미지를 성취하는 교회인 강력한 군대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군대였던 교회는 전쟁을 하러 나갔지만, 그들은 고통받는 증거를 통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12장과 13장에서 우리는 짐승이 싸우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과 전쟁을 벌였으나 이제 성도들의 고난받는 증거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시온 산에서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처녀 또는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로 불린다는 사실이 아마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지적했습니다.

첫째, 그것은 아마도 전투 중에 남자 전사들이 성관계를 삼가해야 한다는 구약의 규정과 같은 신명기의 규정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12장, 특히 13장에서 로마의 우상 숭배 행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도 단순히 순결의 상징일 것입니다. 대신 이제 그들은 저항했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적 순결을 문자 그대로 언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13장에서 시행되고 있던 로마의 우상 숭배 관행과 충성과 숭배에 대한 언급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그 결과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항하고 타협을 거부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14장에 나오는 이 구절들은 이 144,000명이 아마도 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한다는 점을 더욱 확증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더 넓은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사신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땅에서 구속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땅에서 사람들을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속량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144,000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된 자들, 온 땅에서 구속되어 이제 그의 백성을 구성하는 자들, 그리고 어린 양의 백성을 위한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온 국제적인 하나님의 백성, 지금 군대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그들의 지도자이신 시온산에서 어린양과 함께 승리하는 144,000명입니다.

이는 11장에서는 두 증인의 최후에 의로움이 입증되지만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11장, 12장, 13장과도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12장과 13장에서 그들은 또한 용과 그의 두 자손인 짐승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도록 허락을 받고 짐승인 두 짐승의 손에 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용 자신. 그러나 이제 그들은 14장에서 승리하고 12장과 13장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강력한 군대임을 보여주며, 이제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닐지라도 144,000명은 어디에서나 어린양을 따르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그는 간다. 이 책의 주요 주제는 어린양이 어디로 가든, 비록 죽기까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순응하기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갑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를 따라 승리를 거두며,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데, 이는 우상 숭배 행위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로 묘사되는 바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순수함으로써 그를 따른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더 넓은 맥락에서 볼 때 분명히 다음과 같이 고통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습니다.

이 섹션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이미지는 시온 산의 이미지입니다.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온산 역시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보호와 안전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에서 시온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곳임을 발견합니다. 이사야 2장과 2절, 시편 48장,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시온 산에 오는 것을 언급하는 모든 성구들. 예를 들어, 이사야서 2장에서 책의 맨 처음 부분에 있는 내용 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최종 심판, 하나님의 최종 구원,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실 마지막 구원이요 이방 나라들도 그러하리라 이사야가 말하노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말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것이니 곧 여호와와의 전 산에서 산 가운데에 우뚝 설 것이니라. 그것이 산들 사이에 솟아오르고, 모든 나라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사람이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리로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므로 거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 전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보호의 곳,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시온은 아마도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과 동일시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더 많은 설명과 포장을 풀고 폭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또 다른 장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보호의 처소, 구원의 처소인 시온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용어는 4절에 있는데, 첫 열매로 드리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열매는 구약에 있지만 신약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열매는 문자 그대로 농업 용어 또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보장하는 수확의 첫 번째 부분을 가리키는 수확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다가올 다른 모든 것과 별개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확 그 자체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더 풍성한 수확의 첫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신약의 용법에서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과 골로새서 1장의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있을 더 많은 부활 중 첫 번째 부활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더 많은 것에 대한 모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제로 그의 백성도 경험하게 될 마지막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육체적 부활은 앞으로 다가올 부활의 첫 열매, 곧 부활의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144,000명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그룹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확실히 첫 열매의 이미지와 일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있는 144,000명이 특별한 그룹이지만 아직 오지 않을 더 큰 그룹의 첫 열매임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여기 본문을 보면 7장에서와 같이 144,000명이 상징적 언어로 그들의 기업을 누리며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장에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서 승리를 거두는 장면, 특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예상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장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최후의 구원이 있고, 전쟁의 최후의 결과가 있고, 최후의 백성의 구원이 있으니, 전쟁 후 세상 끝에 하나님 백성의 온전한 수가 있느니라. 따라서 여기에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나타내는 그룹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구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첫 열매라는 관점에서 활용된 첫 열매를 발견합니다. 앞으로 올 더 많은 의미가 아니라 전체 국가 자체가 제물이나 첫 열매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을 추수의 첫 열매로 부르는 추수 또는 첫 열매라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추수의 첫 수확이라 불립니다. 그럼, 예레미야서 2장, 다시 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2장과 3장. 예레미야서 2장 2절과 3절을 봅시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까? 유다의 손자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제16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은 내가 원하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아마도 22일 겁니다. 나중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아닌 전체 민족을 지칭하기 위해 첫 열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에스겔서 20장과 40장부터 41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산이 첫 열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성서 야고보서 118장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처음 익은 열매로 묘사되어 있으며, 장차 올 열매가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구약성서와 함께 적어도 구약성서에서 첫 열매를 두어 번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첫열매는 144,000명을 제시하는 것이 다가올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집단이 아니라, 여기서 첫열매라는 말은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전체를 묘사하고 있으며, 지금은 첫 열매, 제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께. 그래서 13장과는 대조적으로 나는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첫 열매인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이 144,000명의 개념이 14장 후반부에 나오는 또 다른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짐승이 온 세상을 속이는 13장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그들을 미혹하여 그들에게 충성을 주게 하고, 짐승에게 그가 요구하고 요구하는 충성을 주게 되며, 또한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는 곳이 됩니다.. 이제 당신은 12장과 13장의 용과 짐승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서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어린양과 함께 섰고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표를 받았습니다. 13화에 나오는 짐승.

그리고 이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불결하고 더러움 없이 서서 시온산에서 어린양과 함께 승리를 축하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따라서 이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은 분명히 12장과 13장에 설명된 갈등의 결과에 대한 일종의 해석, 즉 실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섹션의 6절부터 13절까지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짐승의 편에 섰습니다.

짐승의 궤환에 연루되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충성을 표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는 표입니다. 아마도 박해를 피하거나 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13장의 끝 부분에 경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동일시되어 그에게 경배와 충성을 바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장과 13장은 저항에 실패한 자, 저항을 거부한 자, 타협한 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세 명의 다른 천사들의 연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흥미롭게도, 심판의 생존자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렸던 11장과 13장에서 14장에서 본 것과 동일한 언어가 있는데, 이는 11장 여기저기서 회개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이 천사가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짐승을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 대신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타협하고 로마와 그 우상숭배적이고 무신론적인 예배 제도에 운명을 걸기로 선택한 교회 안의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천사는 복음을 선포하고, 따라서 거부하는 자들은 첫째 천사의 말을 통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옆에 있는데 아마 이 세 개를 따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음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더 명확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제 그들이 직면하는 상황이 정확히 8절과 다음 두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구약성서, 다니엘 4장과 30절, 그리고 바벨론 자체의 심판을 묘사하는 다른 구약성서 본문에 그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14장 8절의 첫 번째 기대입니다. 무너진 것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독한 포도주로 마시게 하는 큰 바벨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7장과 18장에서 더 자세히 전개될 어떤 것에 대한 첫 번째 기대를 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그 멸망과 심판과 멸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을 로마의 암호로 삼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바벨론입니다. 바빌론은 거의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8장, 17장, 18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바벨론은 거의 경건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억압적이고, 억압적인 나라나 제국의 이미지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거의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꼬리표는 또 다른 신이 없고, 오만하고, 폭력적이고, 압제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국인 로마 제국에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에 구현된 것과 동일한 특징이 이제 표면화되고 다시 나타나며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1세기 로마 제국의 1세기 도시 로마에 구현되기 때문에 적절한 명칭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16장과 19절에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했듯이 17장과 18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에 속한 사람들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도시의 멸망이 아니라, 그 도시에 속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입니다. 천사 1장의 메시지는 그들이 저항하기를 거부하고 타협한다면 그들은 이제 천사가 선언하는 바벨론의 운명은 심판의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도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이 메시지는 13장에서 볼 수 있듯이 짐승에 대한 충성의 결과를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13장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10절에서는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9절에서는 이마와 손에 표를 받은 자들을 주목하십시오. 이 두 가지 설명은 바로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형상에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경건하지 않은 로마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에게 임할 심판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설명에서 발견하는 것은 실제로 18장부터 20장까지에서 발견하게 될 최종 심판을 예상하는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미 이것은 일종의 빨리 감기, 즉 더 완전해질 최종 심판에 대한 기대입니다. 비록 그 언어의 대부분이 이미 여기에 사용되어 바벨론 로마와 운명을 같이한 자들, 짐승과 우상숭배하고

신이 없는 압제적인 제국에 충성과 경배를 바친 자들의 운명을 묘사하기 위해 후반 장에서 전개되었지만.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를 확인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주 한 잔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은유였으며, 물로 희석되지 않은 대신에 완전한 힘을 지닌 방식으로 그 포도주를 섞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은 다른 구약성경 본문 중에서 이 언어의 배경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내 진노의 포도주가 담긴 이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내가 보내는 대상으로 만국을 멸망케 하라 당신은 그것을 마신다. 그들은 그것을 마실 때,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칼 때문에 비틀거리고 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와 손에서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 곧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방백들에게 마시게 하여 그들을 황폐케 하여 놀람과 조롱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나이다 오늘날처럼 저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그의 신하 등. 따라서 예레미야 25장은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섞지 않은 포도주, 완전한 독주, 희석하지 않은 포도주의 개념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진노를 발하고 나라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고 취하게 하며, 악한 인류에게 심판을 쏟아 붓는 하나님의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열방은 흥미롭게도 하나님의 진노에 취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 메시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보여주기 위해 8절에서 이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 여자의 간음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음행과 우상 숭배와 민족의 포악함과 로마 제국의 사악함과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취하였느니라. 그것이 바로 그것이 파괴될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라들로 하여금 그것을 마시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들은 로마의 통치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 저자는 처벌이 범죄에 적합할 것이라는 개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즉, 바벨론, 로마는 만국을 그 포도주로 취하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처벌은 범죄에 적합합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연합하는 모든 자들, 바벨론에 가담하는 모든 자들, 로마의 우상 숭배 악행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 그의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심판의 언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연기와 유황의 언어가 영원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연기와 유황의 언어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이미지이자 상징이자 묵시적인 언어일 것이다. 그것은 단지 지금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강렬하고 극심한 고통을 상징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흥미롭게도 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 이르면 바벨론의 멸망이 영원히 올라가는 연기로 묘사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본문은 분리되거나 다른 판단이 아닌, 심판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엿볼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판단이지만 이후 장에서 더욱 완전하고 자세히 개발될 것입니다.

이 언어는 예를 들어 이사야 34장을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34장과 9절과 10절로 돌아가면 34장과 9절과 10절의 심판의 맥락에서 비슷한 언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의 대의를 수호하기 위해 복수의 날, 보복의 해를 갖고 계십니다.

흥미롭게도 14장 서두에 언급된 시온과 관련된 시온이라는 이름에 주목하십시오. 에덴의 시냇물은 역청으로 변하고, 그 먼지는 타는 유황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녀의 땅은 타오르거나 불 같은 피치가 될 것입니다.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고 그 연기가 영원히 솟아오르리라. 대대로 그 땅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맥락에서 불과 유향의 언어에 주목하십시오. 요한이 여기서 끌어낸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로 영원히 올라가는 연기의 언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다시 한 번 흥미롭게도 이사야 34장에는 시온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14장의 시작 부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ohn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구약의 심판 장면에서 언어를 모아 또 다른 사악하고, 사악하고, 압제적이고, 우상 숭배하는 제국과 그 제국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언어를 사람들이 연기를 흡입하거나 유향으로 인해 겪는 문자 그대로의 신체적 고통을 문자 그대로 묘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는 이것을 종말의 핵전쟁이나 그와 유사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과거에 악한 제국들을 심판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와 확실성을 묘사하기 위해 구약성서의 다소 전통적인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세기 하느님의 백성은 그분이 로마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다른 모든 악한 제국을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부분에 있는 천사의 선포는 아마도 이 세 부분 전체가 함께 진행되도록 의도되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요청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멸망당할 바벨론의 운명에 그들을 연루시키는 것이며, 또한 구약의 비유를 사용하여 영원한 연기나 유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게 할 것이지만 또한 술에 취한다는 비유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와 함께, 희석되지 않은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의 상징이나 이미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들은 14장 1절부터 5절까지와 반대되는 의미로, 이제 12장과 13장의 사탄과 짐승과의 싸움에서 신실하게 견디고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이 세 천사의 메시지는 로마와 짐승,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자들, 속임을 당하고 경배와 충성을 드리며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리킵니다. 13. 본 장 14장 12절과 13절은

12절의 이 심판이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고 옹호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내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타협을 원하는 자들에게, 로마 통치의 맥락에 안주하는 자들에게, 타협하고 싶어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로마를 숭배하고, 아마도 박해 등을 피하기 위해 우상 숭배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면, 이 성구들은 그들이 인내하지 못한다면 세 천사의 메시지에 나와 있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는 그 심판과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협하려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타협을 거부하거나 저항을 거부하면 자신도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할 동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들이 제단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오 주님, 우리 피를 갚아 주실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의 피를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한 증인과 그의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변호하시는 것을 봅니다. 14장의 다음 부분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나는 보았거나 다른 부분을 표시하는 것을 보았다'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루어야 하는 방식, 즉 이 부분과 14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첫 번째 논평은 이것이 14장 1절부터 13절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14장 14절에서 이 사건들을 끝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장면, 즉 곡식 수확의 형태로 된 이 장면과 포도 수확의 형태로 된 장면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장의 앞부분에서. 그러므로 이것은 두 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이미지 세트이며, 14장의 첫 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주로 우리에게 끝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독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묘사하지만, 대부분 구약성서에서 가져온 다양한 이미지와 언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탐구합니다. 이제 요한은 구약성서에서 언어를 끌어낼 것입니다. 제 생각엔 예수님의 가르침과 묵시적인 문학에서 이미 14장 14절에서 다른 언어로 묘사한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언어를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부터 13까지. 이제 이 두 장면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말했듯이 두 장면은 분명히 심판 장면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장면은 낫을 가진 인자의 그림이 있는 곡식 추수 장면인데, 그가 나가서 땅을 추수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낫을 쥐고 있는 천사의 장면인데, 이 천사가 낫을 휘두르며 포도를 거두고, 포도나무를 모아서 밟아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은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의 묘사입니다. 이것. 따라서 곡물 수확과 포도 수확이라는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이 두 장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묘사하고 있으며,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와 어떻게 연관되니까? 이것이 단지 무분별한 이미지 모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것이 14장의 처음 13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제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강조하자면, 이 사건들은 14장 1절부터 13장까지의 사건들 이후에 연대순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금의 곡식과 포도 수확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 사건들을 묘사하는 추가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John은 두 장면에서 무엇을 보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들 각각을 데리고 그들의 배경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고, 서로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그것이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을 회상하면서 시작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로 시작됩니다.

그건 그렇고, 요한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신약성경의 묘사와 확실히 일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13절 및 그 이후에는 마태복음 24장과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지만, 아마도 모두 다니엘서 7장과 인자가 앉으셨거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은 요한이 본 흰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의 언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인자를 보는 다니엘서 7장의 언어로 인자를 보는 1장의 환상과 달리, 요한이 인자를 보는 요한계시록 1장과 달리 잘 알려진 인자의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에서 칼이 나오므로 요한은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지만 이제는 그의 손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은 아마도 심판의 주제를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판하러 오는 인자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면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제 생각에 그것은 분명히 1장과 다른 곳에 비추어 볼 때 그렇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에게 낫을 휘두르며 땅을 추수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여기 있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거나 다른 천사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제안했습니다. 인자와 예수를 다스리며 그에게 무엇을 할지 지시하는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열쇠는 천사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림은 단지 천사가 인자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성전에서 메시지를 가져오고 있거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야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수확이 익었고, 이제 수확을 거둘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약성서의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최후의 심판과 가라지를 태워버리는 역사 마지막 때에 있을 추수를 묘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은 잡초와 밀이 함께 자라는 밭으로 보입니다. 잡초는 뽑아내고 태워버리고 곡식과 잡초는 뽑아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창고에 넣어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수확하시는 것을 본 것은 바로 긍정적인 작물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익은 추수를 언급하시며 제자들에게 영생을 위한 추수를 거두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곡식 수확의 이미지를 접한 것으로 보이는 한 예이거나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첫 번째 예인 마태복음 13장에서 잡초는 타서 죽지만 곡식은 보존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추수할 때가 익었다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추수는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는 추수가 익어가는 것을 봅니다. 영생을 위하여 거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은 144,000명의 첫 열매, 곡식 수확의 언어, 하나님을 위한 첫 열매로서의 이미지를 포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는 긍정적인 수확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 내리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인의 심판이 아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수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첫 열매인 144,000명의 수확입니다. 이제 땅의 수확이 무르익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자가 오는 것은 추수하러 오는 것이니 곧 영원한 상을 위하여 사람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14절부터 16절까지가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즉 타협을 거부하여 승리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인 144,000명에 해당됩니다. 이제 두 번째 이미지인 두 번째 장면은 포도 수확입니다. 그리고 여기 추수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불신자들의 추수에 관한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즉, 17절부터 끝 부분까지가 8절부터 13절까지 대응됩니다. 죄송합니다.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내하고 저항하라는 일종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8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 믿지 않는 바벨론과 믿지 않는 세상에 심판하는 천사들의 메시지가 이제 그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의 추수절은 14장 전반부, 곧 하나님의 처음 익은 열매인 144,000의 형상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 수확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끝부터 20절까지는 8장부터 11장까지가 해당됩니다. 그것이 불신자들의 심판입니다. 이제 8장부터 20장까지의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14장부터 20장까지의 두 번째 심판 장면에서 포도 수확으로 묘사됩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이 첫 번째 섹션에서 흥미롭다는 점을 더 암시할 수 있습니다. 추수하러 오는 것은 인자이다. 이제 추수하러 오는 또 다른 천사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천사가 인자를 불러서 수확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른 천사가 낫을 들고 오는 첫째 천사를 부릅니다. 그는 또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의 제단에서 나와 이제 낫을 휘두르라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도 수확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8장, 1장부터 5장까지에서 성도들이 연합된 것처럼 성도들의 이 기도가 제단의 향과 연합되었음을 암시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것을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 주님, 언제까지나 부르짖는 순교자들의 변호입니다. 그러나 이제 추수 때가 되니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두어 들인다. 왜냐하면 이제 포도즙들이 짓밟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의 이미지는 아마도 포도로 가득 찬 통이 있을 것이고, 포도는 말 그대로 짓밟혀서 주스가 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스는 와인을 만드는 데 사용될 다른 통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의 배경은 아마도 요엘서 3장과 13절일 것입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는 포도 수확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6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과 3절에는 포도를 짓밟는다는 말, 혹은 수확을 상징하는 포도라는 말을 발견합니다. 62장 처음 두 절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의가 새벽 같이 빛나고 그 구원이 햇불 같이 빛나기까지 내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리라 14장의 시작 부분에서 다시 발견한 시온과의 흥미로운 관계에 주목하십시오. 열방이 당신의 의로움을 볼 것이며 모든 왕이 당신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여러분은 일컬어질 것입니다. 너는 주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6절: 예루살렘아 내가 네 성벽에 파숫군을 두었으니 그들이 밤낮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부르고 너희 자신을 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장을 잘못 읽었네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찾아봐야겠어요.

애가 1장 15절은 짓밟힌 포도의 이미지를 마지막 추수의 이미지로 사용한 또 다른 예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은 시온 성 바깥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선지자들에게서 성 바깥의 언어, 즉 성 밖에서 일어나는 심판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14장의 시작 부분에서 시온으로. 그래서 이제 당신은 요엘서, 이사야서, 애가와 같은 책에서 가져온 구약의 용어로 심판이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포도주 틀을 짓밟고 포도를 짓밟는 것으로 묘사되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그런데 심판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포도주에서 나오는 즙이 결국 피가 된다는 점입니다. 즉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전쟁의 희생자들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조금 살펴보고 싶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작가가 사용한

피의 이미지가 말 굴레까지 올라가서 600 스타디아로 구성된 섹션 길이에 걸쳐 확장되어 있음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나는 John이 그 이미지를 어디서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성도의 구원, 악인에 대한 심판 20회입니다.